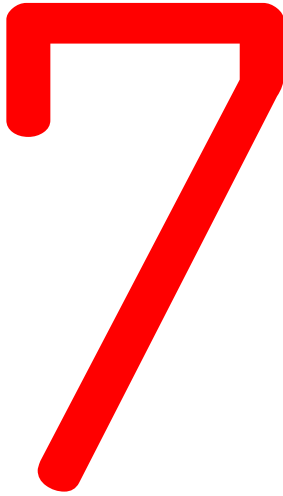


THE
HUNDREDFIFTH K C

NEWS

LETTER

july



-
1. KC그린홀딩스, 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 KC그린홀딩스, 신입사원 소개
 3. KC코트렐, 경력사원 교육
 4. KC글라스, 전기로 무재해 기원식
 5. KC네트웍, 반기 경영회의 개최

1.

KC그린홀딩스, 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KC그린홀딩스는 2012년 환경 기업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올해로 일곱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지난해 10월에 진행했던 이해관계자 대화(201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8p 참고)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2018년 보고서 구성을 기획하였다. 기존의 보고서와 달리 KC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한 사업 특성을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보고서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KC만의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은 1월에 시행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내 외부 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10개 이슈를 선정하여 보고하였고, (201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40p 참고) 세부 자료는 각 관계사의 담당자들로부터 취합하여 작성, 제3자(외부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의 검증을 거쳐 지난 7월 초 발간하였다.



KC그린홀딩스
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KC그린홀딩스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으며, 원하는 경우 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보고서의 가장 큰 독자층인 임직원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이해하고 향후 지속가능경영활동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전 관계사 임직원에게 배포하였다.

앞으로도 독자층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KC네트워크 경영활동의 거울이 되는 탄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되길 기대한다. (끝)

2.

KC그린홀딩스, 신입사원 소개

지난 동계 인턴프로그램을 마치고 KC그린홀딩스에 입사했던 김예준, 신예진 사원이 수습을 마치고 KC그린홀딩스의 정식 일원이 되었다. 김예준 사원은 전략경영팀 소속으로 KC네트워크의 경영성과 관리 및 주요 업무 지원, 대외 자료 작성 등의 관리 파트 업무를 맡고있으며, 신예진 사원은 재무관리팀 소속으로 KC코트렐의 일일자금원화, 법인카드 등을 담당하는 자금 업무를 맡고 있다.



▲김예준 사원



▲신예진 사원

이번 수습을 마치고 김예준 사원은 “함께 일하고 싶은 KC의 일원이 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신예진 사원은 “인턴부터 수습기간까지 벌써 6개월을 KC에서 보냈는데, 좋은 회사 선배 분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즐겁게 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끝)

3.

KC코트렐, 경력사원 교육

KC코트렐은 신규 입사자 경력사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07월 16일부터 이틀간 스마트에너지팀 정현욱 과장, APC사업관리팀 이용준 대리, 기술서비스팀 김수라 대리, 세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차 교육은 APC사업관리팀 이영석 선임, 에너지엔지니어링팀 김대욱 대리, 신사업팀 박진아 사원, 에너지엔지니어링팀 김병준 사원, R&M사업부 김광우 사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이틀간 2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경력사원 교육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사업부별로 팀 소개 및 각 사업부 아이템을 중심으로 회사 전반적인 사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아 신규 채용된 경력사원들은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교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력사원 채용을 통하여 KC코트렐이 한층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

4.

KC글라스, 전기로 무재해 기원식

불별더위가 절정을 향해가던 지난 7월 25일, KC글라스는 3주간의 전기 용해로 및 기계, 전기설비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새 전기로에 점화하는 화입식과, 안전한 설비 운영을 기원하는 무재해 기원식을 거행하였다.

본 행사에는 역대 최고의 폭염으로 인한 고온의 작업 환경 속에서도 완벽한 보수공사를 위해 총력을 다해주신 당사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된 보수공사를 축하하고 무재해 및 양질의 제품이 생산되길 축원하였다. 특히 이석구 부사장, 생산 상무, 3M 관계자가 함께 화입 버튼을 누르며 향후 10일간 진행될 전기로 승온 작업과 이후 제품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원하였다.

금번 전기 용해로 및 유리소재 생산라인 보수는 전기로 신설 후 2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축로 시 최고 품질의 내화물을 사용하고 전기, 기계설비를 최적의 보수를 통해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KC글라스는 이번 전기로 보수공사를 통해 유리 신소재 생산의 선두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

끝으로 삼복더위와 약 20일간의 촉박한 공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기로의 완벽한 보수를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협력업체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끝)



5.

KC네트워크, 반기 경영회의 개최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상암동 본사 11층에서 KC네트워크 반기 경영회의가 진행되었다. 27일 클레스트라하우저만, NWL-Pacific, KC코트렐을 시작으로 30일에는 KC그린소재, KC솔라에너지, KC환경서비스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31일 놀텍코리아, KC에코물류, KC글라스까지 총 9개 관계사의 경영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KC네트워크 반기 경영회의에서는 상반기 경영 실적 분석과 하반기 실적 추정, 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반기 추진 전략 및 관계사 별 주요 이슈 등이 논의되었다. 각 관계사는 불확실한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실행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바탕으로 연 목표 달성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관계사 모두 연 목표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여 KC네트워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끝)

알차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서
활력을 UP!

저 휴가다녀 오겠습니다!!



어절다녀와!

휴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연락자제,
업무 대신처리

THE HUNDREDFIFTH K C

NEWS

LETTER